

A Study on Word Choice in Korean Media Reporting Infectious Disease

- Focusing on Zika Virus, Haemaphysalis longicornis and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

Ji Young Jeon⁺

KAIST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Master of Science Journalism,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s of risk communication ar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relieve psychological anxiety among the public.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ell the Korean media functioned as a principal agent of risk communication, focusing on word choice in reporting recen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Zika virus, Haemaphysalis longicornis, and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A corpus linguistic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rrespondents. It is found that negative terms were often used on the headlines in a provocative manner rather than on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The words used in the report were also found to be fairly provocative, although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rged the press to refrain from using such words. The interview pointed out that the competition among the press was a major barrier hindering good risk communication.

Key words: risk communication, disease reporting, word analysis

1. 서론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 등 각종 위험성 감염병의 유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전세계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으며 건강이나 일상생활, 나아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Kim, 2006).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대처 능력

을 향상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대중은 미디어의 보도에 따라 병을 이해하게 되고 사안의 불확실성 또한 높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다(Glik, 2007). 실제로 수용자의 70%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Jo, 2001), 언론이 질병관련 보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감이 아닌 합리적인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 Corresponding author: Ji Young Jeon, Tel. +82-42-350-4202, Fax. +82-42-350-4228, e-mail. wisehero109@naver.com

감염병은 처음에는 의료관련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서비스 산업과 노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WHO, 2005).

그러나 질병관련 보도가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냉철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세균’을 위협적 존재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Song & Cho, 2015), 메르스 당시 언론이 공포감을 조장하는 표현과 부정확한 정보를 전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Kim, 2016). 이전에도 신종 감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언론 보도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용어 대신 ‘지카 바이러스’로 표현해주시기를 당부했고,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를 ‘살인진드기’라고 부르거나 ‘다제내성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해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주제로 국내 감염병 관련 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있는 보도 분석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대로 도출된 특정 유목들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코퍼스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용해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춰, 국내 언론의 감염병 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객관화하여 밝힐 것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보도 어휘 선택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감염병과 같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론이 바람직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언론의 역할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알려 위험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는 과정과 더불어, 공중이 심리적 위안과 행동 수칙을 함께 얻도록 하는 지침서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실제적 위해 요소에 공포, 불안 등이 더해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므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위험과 실제 위험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Kim, 2016). 언론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정 위험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개인은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Lee & Lee, 2012). Ju & You(2010)는 미디어가 사람들이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위험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개인화된 위험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언론의 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료정보는 병원이나 의사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Kim, 2016).

그러나 오늘날 언론에서 전달하는 위험보도는 종종 선정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보도로 변질돼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Kim & You, 2012). 공중이 위기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할 경우 부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위기 대처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잘못 해석되거나 아예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언론 보도에 주의가 필요하다(Slovic, *et. al.*, 1979).

2. 감염병 보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염병 보도가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Song & Cho, 2015). 신종플루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Kim(2009)에 의하면, 심리적 불안과 염려(45.3%)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으며, ‘공황상태’, ‘불안’, ‘공포감 확산’, ‘패닉’, ‘집단 히스테리’, ‘기피’ 같은 어휘들로 신종플루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부정적으로 집중 조명해, 신문 보도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켰다. Ju & You(2011)의 신종플루 관련 보도 연구에서는 신문이 예방법이나 대책 등 ‘예후’ 프레임보다는 피해 확인 중심으로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 프레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4)은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문·방송 기사 제목에 나타난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감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 ‘의료진’, ‘안전’ 등은 네트워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Song & Cho(2015)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방송 보도 경향을 분석했는데, 사실 중심적 기반의 보도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외부 정보들을 단순 활용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취재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환자 발생이나 바이러스 전파 등 특정 이슈에만 보도량이 증가했고 관련 통계로 심각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양적분석을 통해 언론이 해당 감염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집중됐다. 연구 결과로는,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감시기능에 있어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조성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의 주요 역할인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Holmes, *et. al.*(2009)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관련자들 간에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가 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감염

병 관련 보도가 절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이론 및 관련 연구

미국의 언어학자 Chomsky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규정했다. 언어란 단지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개인의 내면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존재가 머무는 곳이며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라는 의미다.

언어가 사물의 지각이나 기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억을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armichael, *et. al.*(1932)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그림을 놓고 한 그룹에는 ‘아령’, 다른 그룹에는 ‘안경’이라고 설명했다. 피실험자들에게 그림을 기억대로 그려 보라고 하자 붙여진 이름의 물체와 유사하게 그림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와 비슷하게 Loftus(1979)의 연구 결과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한 그룹에는 자동차가 ‘부딪혔다’, 다른 한 그룹에는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장면에서 깨진 유리를 봤는지 물었을 때, ‘충돌했다’는 단어를 본 피험자들이 ‘부딪혔다’는 단어를 본 피험자들보다 “예”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일지도 표현하는 어휘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 중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다. PC(political correctness)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을 바로 잡으려는 운동으로, 1980년대 성차별적·인종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black’ 대신 ‘African-American’, ‘oriental’이 아닌 ‘Asian-American’, ‘fireman’ 대신 ‘firefighter’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이다. 한국판 PC운동의 성공 사례로는 검찰이 성폭력 범죄 공소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던 ‘욕정을 못 이겨’,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 대신 ‘~하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Druckman(2001)에 따르면, 사안의 특정부분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조프레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미국 오바마 정부의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해 ‘총기 규제’라는 단어를 쓸 경우,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총기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 반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R.L.G., 2013). 이처럼 강조프레이밍은 주어진 사안에 관한 고려 사항들 가운데 일부분을 특별히 부각시킴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해석을 구성하고 변화시킨다.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Noh & Lee, 2013). 대표적으로 Whitmarsh(2009)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기온의 증가’와 ‘빙하의 녹아내림’ 등을 주로 대답한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의 두 가지 진술을 한 사람의 수가 적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에 비해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기온의 증가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언어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어휘로 대상을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의 문제며, 특히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 언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언론의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McEnergy & Wilson(1996)에 따르면, 현대 코퍼스 언어학에서 말하는 코퍼스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화된 텍스트의 집합을 지칭한다. 기존의 언어학이 직관을 중요시하는 반면 코퍼스 언어학은 실제 언어의 사용 용례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코퍼스를 구축해 텍스트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언론 기사 분석에 유용한 도

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문 기사 분석에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론을 처음 적용한 것은 Song & Kang(2006)의 연구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구축된 대규모 신문 기사 코퍼스가 사용됐는데 신문 기사를 표제, 전문, 본문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형태, 어절, 문장 등의 단위로 계량화해 신문 기사의 언어 현상을 규명했다. Kim, *et. al.*(2012)은 ‘물결 21’사업¹⁾으로 구축된 대규모의 신문 코퍼스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추출하고 이들과 공기(空起)하는 단어들의 연도별 증감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제 대한 관심 변화의 추이를 분석했다. 신서인(2015)은 핵심어나 연어 분석이 ‘물가 안정’, ‘지속 가능성’, ‘차세대 성장 동력’ 등 하나의 구를 이루는 표현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도입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성장’ 관련 담화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Kim(2007)은 자살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며 ‘투신’, ‘동반자살’, ‘한강’ 등 자살 장소나 방법과 관련된 어휘가 핵심어로 사용되고 있어 자살 보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코퍼스 분석을 기반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뤄졌다.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측정해서 단어들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당 텍스트에 내재된 내용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다(Popping, 2000). Lee(2010)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분석한 Lee & Hong(2016)의 연구와 다제내성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사용됐다.

1) ‘물결 21’ 사업은 대규모의 신문 코퍼스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언어·사회·문화적 추이를 연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2000년 이후 신문 기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형태분석이 돼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토대 자료라 할 만 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언론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할 때 정확한 용어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감염병 관련 보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어휘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에 따라, 언론 보도에 사용된 감염병 지칭 용어에 변화가 있었나?

연구 문제 3: 감염병 보도준칙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표현' 사용이 자제되었나?

연구 문제 4: 감염병 보도에 자극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사례

지난 10년간 발견된 신종 감염병 중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만큼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리고 다제내성균 감염증 등 세 가지 감염병을 선정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각기 '소두증 바이러스', '살인 진드기', '슈퍼

박테리아'라는 용어로 표현돼 질병관리본부의 주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3. 연구 대상 수집 절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3대 일간지와 KBS, MBC, SBS 등 3대 지상파 방송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각 언론사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지카/소두증', '야생진드기/살인진드기',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를 검색어로 사용했고 그 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사들만을 추출해 데이터를 수집한 뒤 원시코퍼스를 구축했다. 신문기사의 경우 인터넷판은 제외하고 지면에 실린 기사로 한정했으며, 방송기사의 경우 서로 다른 시간대 뉴스에 같은 기사가 중복 방송되는 점을 고려해 KBS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 뉴스'에 방송된 기사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외에서 각 감염병이 발생한 시점이 달라 관련 보도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의 시작 시점은 각기 다르며, 종료 시점은 2016년 9월 30일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258건, 야생진드기 126건, 다제내성균 150건 등 총 534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분석 방법

1) 코퍼스 분석

구축된 원시 코퍼스에 대한 분석은 '깜짝새'로 불리는 코퍼스 검색 및 분석 프로그램인 통합한글처리기(SynKDP) 1.5.5 Beta 버전을 사용했다. 추출 단위는

Table 1.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Zika virus

Time	2015. 12.	2016. 1.	2016. 2.	2016.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Amount	1	43	103	31	17	15	15	10	18	5

Table 2.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Time	2013	2014	2015	2016
Amount	1	43	103	31

Table 3.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Tim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mount	1	-	2	-	1	-	-	3	-	4	-
Tim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mount	1	2	2	6	54	32	9	11	4	7	11

Table 4.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

Journalist	Journalist Experience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Correspondents Experience
A	13 years	1 year
B	15 years	1 year 1 month
C	18 years	1 year
D	17 years	6 years

명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접사, 어미, 조사 등 기능어는 제외했다. ‘태어나’, ‘태어난’, ‘태어났다’, ‘태어나서’ 등과 같이 어근은 동일하지만 어미가 다른 경우 모두 기본형 ‘태어나다’로 취급했다. 명사에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의 경우에도 접미사를 제외하고 명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감염되다’나 ‘사망하다’의 경우 각기 ‘감염’과 ‘사망’ 등으로 나타낸 것이 그 예이다.

또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분리해서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코퍼스를 구축했다.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훑어보는 독자에게 기사 열독에 대한 대체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Emig, 1928), 기사 내용을 읽는 독자에게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Lee, 2000). 또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기사 제목에 특정 단어의 사용을 삼가라고 명시돼있는 점을 근거로 기사 제목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제목 3,255개, 본문 108,505개의 단어가 코퍼스로 구축됐다.

2) 심층인터뷰

보건복지부에 출입하고 있는 4명의 기자들과 서면(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는 의학전문기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 중 약

80%는 출입기간이 2년 미만이다. 이러한 일반적 상황을 고려해 4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3명은 비(非)의학전문기자로, 1명은 의학전문기자(D'기자)로 구성했다. 또 언론사 내부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들과 인터뷰하기 위해 기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IV. 연구 결과

1. 고빈도어 분석

크기가 다른 코퍼스에서 고빈도어를 비교하기 위해 1,000 단어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빈도를 함께 제시한다. 정규화 공식은 (해당 어휘 부류의 실제 사용 빈도/ 해당 사용역의 전체 사용 빈도)×(정규화 기준 단어 수)다(Bae, 2014).

1)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했으며 ‘지카’와는 별개 종류 어휘로 봤다.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1,625개, 본문 53,049개 단어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제목에는 ‘지카’로 축약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본문에 비해 많았다.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가 제목과 본문에서 모두 고빈도어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Table 5.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Zika virus

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Zika virus	98	60	Zika virus	1353	26
2	Zika	86	53	infection	1121	21
3	infection	69	42	mosquito	748	14
4	mosquito	39	24	Brazil	528	10
5	microcephalia	33	20	microcephalia	368	7
6	spread	32	20	patient	337	6
7	Brazil	26	16	pregnancy	318	6
8	emergency	24	15	spread	256	5
9	Olympics	23	14	domestic	255	5
10	pregnancy	20	12	virus	232	4

Table 6.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killer tick	50	65	tick	457	21
2	wild tick	43	56	infection	375	17
3	death	34	44	virus	334	15
4	patient	33	43	patient	325	15
5	tick	27	35	be bitten	278	13
6	infection	25	33	SFTS	265	12
7	suspicion	25	33	die	168	8
8	virus	22	29	Haemaphysalis longicornis	162	7
9	outbreak	17	22	wild tick	148	7
10	domestic	15	20	killer tick	130	6

으로는 ‘이집트숲모기(96회)’와 ‘흰줄숲모기(92회)’로 알려졌으나 이를 ‘모기(748회)’로 대체해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목에서도 역시 ‘흰줄숲모기(4회)’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기 보다는 ‘숲모기(3회)’, ‘지카모기(9회)’라고 하거나 ‘모기(30회)’라고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구체적인 이름을 길게 명시하기 보다는 짧게 나타내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특징이 제목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야생진드기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769개, 본문 21,717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매개 진드기의 학명인 ‘작은소참진드기’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했으며 ‘살인진드기’와 ‘야생진드기’도 하나의 어휘로 다뤘다.

분석 결과, 진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살인진드기’, ‘야생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등으로 다양했다. 제목에는 ‘살인진드기(50회)’라는 표현이 ‘야생진드기(43회)’보다 소폭 많이 사용됐고 본문에서는 ‘야생진드기(148회)’라는 표현이 ‘살인진드기(130회)’보다 많이 쓰

여, 자극적 표현인 ‘살인진드기’의 쓰임이 본문보다는 제목에서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바이러스 매개체를 ‘진드기(457회)’로 통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작은소참진드기(162회)’의 쓰임보다 두드러졌다. 제목에서도 ‘진드기(27회)’가 고빈도로 나타났으며 반면 ‘작은소참진드기’는 단 두 번 사용됐다. 이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학명을 길게 명시하기보다는 간략하게 표현하기를 선호하며 특히 본문보다 제목에서 자극적 용어의 사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병명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보다는 약어인 ‘SFTS’가 더 많이 사용됐다. 제목에서 ‘SFTS’는 1회 사용됐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본문에서는 ‘SFTS’가 265회 사용된 반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117회 사용돼, 간략한 어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제내성균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861개, 본문 33,739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슈퍼박테리아’는 하나의 어휘로 취급

Table 7.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Superbacteria	111	129	antibiotic	965	29
2	antibiotic	39	45	infection	765	23
3	infection	34	39	tolerance	539	16
4	spread	22	26	hospital	530	16
5	death	18	21	Superbacteria	511	15
6	hospital	18	21	patient	475	14
7	domestic	17	20	germ	317	9
8	fear	14	16	discovery	155	5
9	patient	12	14	bacteria	148	4
10	emergency	9	10	Germany	143	4

했으며 ‘슈퍼박테리아’로 표현한 경우 ‘슈퍼박테리아’로 바꾸었다. 분석 결과, ‘다제내성균(제목 7회, 본문 61회)’에 비해 ‘슈퍼박테리아(제목 111회, 본문 965회)’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 관련 보도의 고빈도어 분석에서 공통으로 눈여겨 볼 것은 ‘확산’, ‘비상’, ‘의심’, ‘공포’ 등의 감성어휘가 제목에서 빈번하게 사용됐다는 점이다.²⁾ Jung & Nah(2007)는 감성어휘를 감각어휘, 감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 등으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확산’은 존재어휘에, ‘비상’, ‘의심’, ‘공포’는 감정어휘에 속한다.³⁾ 감성어휘는 생리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감정어휘와는 다르다. Lee(1997)에 따르면 감성은 상황에 따라 갖게 되는 다양한 서로 다른 느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감성어휘란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 견해가 드러난 어휘를 말한다. 분노나 공포 등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대중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andman, 1997) 감성어휘의 사용을 줄이고 언어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저널리즘이 가치중립을 지키는

일이다(Hong, 2015).

2.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른 보도용어의 변화

1) 지카 바이러스

올해 1월 26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표현 대신 ‘지카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고안이 각 언론사에 전달된 후, 관련 보도의 제목과 본문에서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지카 바이러스가 야생진드기나 다제내성균의 경우에 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이 빠르게 발표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가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권고안 이전(제목 75개, 본문 2,062개 어휘)의 기사량이 권고 이후(제목 1,550개, 본문 50,987개 어휘)의 기사량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을 밝혀둔다.

2) 야생진드기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5월 24일 ‘살인진드기’ 대신

Table 8. Word change for reporting Zika viru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Sort	Time	Zika virus		Microcephalia virus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1	50	1	50
	After the Advice	183	100	0	0
Body	Before the Advice	58	96.7	2	3.3
	After the Advice	1392	100	0	0

Table 9. Word change for reporting the Haemaphysalis ongicormi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Sort	Time	Wild tick		Killer tick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2	5.6	34	94.4
	After the Advice	41	73.2	15	26.8
Body	Before the Advice	5	5.6	85	94.4
	After the Advice	140	75.7	45	24.3

2) ‘확산’, ‘비상’, ‘의심’, ‘공포’를 감성어휘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언어의 의미론적 분류가 객관적으로 합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Hong(2015)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으로 어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통화 완화정책 기대’라는 문장 속의 ‘기대’라는 단어도 중립적 어휘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자질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관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어휘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감정어휘’는 주로 내면적 또는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가 작용하는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과 관련된 어휘다. ‘존재어휘’는 시공간적 존재 상태, 물형 판단의 존재성, 외면 모습, 사물의 관계, 수량 상태 등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나 존재 양상을 묘사하는 어휘군을 가리키는데, 시간성, 공간성, 형태성, 수량성, 행동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Jung & Nah, 2007).

Table 10. Word change for reporting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Sort	Tim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Superbacteria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6	10.3	52	89.7
	After the Advice	1	1.7	59	98.3
Body	Before the Advice	36	12.4	255	87.6
	After the Advice	25	9	253	91

Table 11. Change of reporting word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Panic		Havoc		Chaos		Fear		Rampancy		Disaster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Title	Before	-	-	-	-	14	21.5	-	-	3	4.6	-	-
	After	-	-	-	-	22	8.4	-	-	-	-	-	-
Body	Before	-	-	-	-	32	1.3	4	0.2	8	0.3	-	-
	After	5	0.1	-	-	98	1.2	32	0.4	5	0.1	-	-

‘야생진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살인진드기’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각 15회와 45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과 비교하면 ‘살인진드기’로 표현한 건수보다 ‘야생진드기’로 표현한 건수가 제목과 본문에서 각 41회와 140회로 더 많아서 권고안의 내용이 기사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3) 다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는 지구상의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병원균을 뜻하는데, 언론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원균도 ‘슈퍼박테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현재 지구상에 슈퍼박테리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균이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다제내성균’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권고안을 수차례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권고안이 발표된 2010년 12월 15일을 분석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권고안은 보도 용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 전에는 ‘슈퍼박테리아’ 용어가 제목에서 52회(89.7%), 본문에서 255회(87.6%) 사용됐으나, 권고 후에는 제목에서 59회(98.3%), 본문에서 253회(91.0%)로 오히려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다제내성균’은 권고 전에 제목에서 6회(10.3%), 본문에서 36회(12.4%) 사용됐고, 권고 후에는 각 1회(1.7%)와 25회(9.0%)로 사용 비율이 낮아졌다. 오히려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슈퍼박테리아’의 쓰

임이 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른 보도 어휘의 변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으로 마련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2012년 5월에 개발됐으나 최종본이 2015년 1월에 발표된 점을 감안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준칙 전’으로, 2013년 1월 1일 기사부터 ‘준칙 후’로 임의 구분했다. ‘준칙 전’과 ‘준칙 후’의 코퍼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000단어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빈도를 함께 제시한다. 준칙 중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으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등의 출현 빈도를 분석했다. 분석 어휘의 개수는 준칙 이전에 제목 651개, 본문 25,162개, 준칙 이후에는 제목 2,604개와 본문 83,343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포’와 ‘재앙’의 사용이 소폭 줄어든 반면 ‘패닉’과 ‘창궐’의 쓰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보도 준칙에 따라 해당 어휘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층인터뷰

감염병 보도에서 자극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볼 수 있다.

1)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쉬운 용어

“감염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 해당 감염병

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카 바이러스’라는 낯선 전문용어로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주된 증상인 소두증을 중심으로 감염 질환을 설명한다는 차원이다. ‘슈퍼박테리아’는 자극적인 어휘라기보다 항생제 내성에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잘 표현한 것이다.” (A’기자)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른 보도 용어의 변화를 코퍼스 분석한 결과, ‘소두증 바이러스’나 ‘살인진드기’ 어휘의 사용이 줄어든 반면 ‘슈퍼박테리아’의 사용은 권고안 이후에도 변함없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소두증 바이러스’나 ‘살인진드기’가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작명이라는데 동의한 반면 ‘슈퍼박테리아’는 ‘다제내성균’과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 콘텐츠로써 주목받을 만한 용어

“기사 제목을 보면 궁금하고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름을 선호한다. 담당기자의 전략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가 특정 용어 사용에 주의하라고 권고해도 그보다는 콘텐츠로써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둔다.” (A’기자)
 “눈에 띄는 제목을 뽑아서 기사가 채택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건 힘들다.” (D’기자)

3) 치열한 보도 경쟁

“보도 준칙을 잘 아는 기자라도 막상 보도 경쟁이 발생하면 준칙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B’기자)
 “나 혼자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에서 공포식으로 보도하면 후자가 더 호응을 받는 분위기에서 나 혼자만 드라이하게 보도할 수 없다.” (A’기자)

4) 언론사 내부 시스템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는 ‘지카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편집기자들이 ‘소두증바이러스’라고 내보낸다. 취재기자가 기사를 쓰지만 제목을 뽑는 것은 편집기자의 고유권한이다. 취재기자가 준칙을 잘 지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D’기자)

“큰 문제 없는 감염병이라는 식으로 쓰면 편집회의에서 기사로 내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쓴다.” (A’기자)

앞서 코퍼스 분석 결과를 보면, 부적합한 용어나 감성어휘의 사용이 기사의 제목에서 두드러졌는데, 그 원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문은 취재기자에 의해 작성되지만 제목은 편집기자가 만들기 때문에 취재기자가 가치중립적인 어휘로 기사를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집기자는 이를 자극적인 어휘로 만든다는 것이다.

5) 감염병 보도 준칙의 공유 부족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랑 같이 만들었다는 보도준칙이 있는 줄도 몰랐다.” (C’기자)
 “보도준칙에 대해 듣긴 했다. 하지만 준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B’기자)
 “보도준칙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준칙을 정한 후에 검토만 하는 정도였다.” (D’기자)

앞서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른 보도 어휘의 변화를 코퍼스 분석한 결과, 보도 어휘가 준칙을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자들의 대부분이 준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6) 커뮤니케이션 부재

“정부 부처와 기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슈퍼박테리아’ 대신 ‘다제내성균’을 쓰라는 보도자료가 내려왔지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다른 자료에서는 ‘슈퍼박테리아를 막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부처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C’기자)
 “언론사들 간에 어떻게 기사를 쓰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원래 공유되지 않는다.” (A’기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는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바뀌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D’기자)

V. 결론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언론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감이 아닌 합리적인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에서 자극적인 용어가 고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향은 기사 본문보다 제목에서 두드러졌고 감성어휘가 제목에서 자주 발견됐다. 그 원인으로, 낮은 감염병 용어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하나의 콘텐츠로써 주목을 끌기 위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특정 용어 사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면, 이에 따라 보도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 코퍼스 분석 결과, 권고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소두증 바이러스’나 ‘살인진드기’ 어휘 사용이 줄어들었고 인터뷰에서도 권고안을 보도에 반영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셋째, 감염병 보도 준칙은 보도 용어 사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용을 자제하라고 준칙에 명시된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에 나타났는데, 인터뷰 결과, 보도준칙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입처가 변경된 기자들은 이전에 마련된 준칙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기자들 대부분이 준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넷째, 올바른 감염병 보도 어휘의 사용은 취재기자의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편집기자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제내성균 관련 보도의 경우 ‘슈퍼박테리아’가 ‘다제내성균’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두 용어의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취재기자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사 제목을 정하는 고유권한은 편집기자에게 있기 때문에, 편집기자가 감염병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사 제목에는 잘못된 용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자극적인 어휘가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치열한 보도 경쟁 때문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보도준칙이나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보다 우선하는 것이 치열한 보도 경쟁에서 콘텐츠로써 주목받을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기사보다 위험공포식의 기사에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분석이다. 마지막 여섯째, 다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다. 정부 부처와 기자들 사이에, 언론사들 간에, 그리고 기자들 간에도 감염병 보도용어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서 사용된 용어를 보면 부처 내부에서조차 용어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합해 보면, 언론이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정확한 정보전달과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서 자사 콘텐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병을 보도하는 언론은 상품으로써 뉴스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뉴스 시장성이 아닌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감염병 보도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기자들이 그 내용을 따르고 인터뷰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일회성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보도 어휘를 체계적으로 누적 정리해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면 지속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취재기자뿐 아니라 편집기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괄목한 만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언론보도 분석 연구가 프레임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도출된 특정 유목들에 대한 내용분석이 위주라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반면, 본 연구는 코퍼스언어학적 방법을 이

용해 언론보도를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상 이면에 담긴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방송 기사와 지면 신문을 통해 보도된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뉴스를 열람하는 사람이 종이 신문을 읽는 구독자의 수를 넘어섰으며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 뉴스 미디어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3배가 넘기 때문에(Heo, *et. al.*, 2015), 온라인 뉴스 기사로 확대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기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의 주장을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적 근거로 삼아, 추후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지 등을 통해 감염병 보도 용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가 기초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석사 논문을 요약한 것임.

References

- Bae, Jin Young. 2014. A Study on Vocabulary Use Based on Spoken and Written Registers: Focus on Conjunctive Adverbs. *Journal of Korealex*. 23: 95-129.
- Carmichael, Leonard, H. P. Hogan, and A. A. Walter. 1932.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Language on the Reproduction of Visually Perceived Form.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5(1): 73-86.
- Druckman, James N. 2001.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23(3): 225-256.
- Emig, Elmer. 1928. The Connotation of Newspaper Headlin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4(4): 53.
- Glik, Deborah C. 2007.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Public Health*. 28: 33-54.
- Heo, Yong Kang, Soo Yeon Cha, Phil Kyo Seo, So Young Kim, and Hye Jin Paek. 2015. A Content Analysis of Mainstream Newspapers' Representation of Ebola Virus Issues based on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12: 75-113.
- Holmes, Bev J., N. Henrich, S. Hancock, and V. Lestou. 2009.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during Health Crises: Experts' Experiences and Opinions. *Journal of Risk Research*. 12(6): 793-807.
- Hong, Seong Ho. 2015. *Journalism Writing 10 Principles*. Communicationbooks.
- Jo, Hong Jun. 2001. Healthcare Press-Do not Approach Health as a Personal Matter. *Newspaper & Broadcasting*. (361): 20-21.
- Ju, Young Kee and Myoung Soon You. 2010. Representing Health Risk: A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n News Media's Coverage of Emerging Diseases and Chronic On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2): 363-381.
- Jung, Hyun Won and Ken Nah. 2007. A Study on the Meaning of Sensibility and Vocabulary System for Sensibility Evaluation.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26(3): 17-25.
- Kim, Byoung Cheol. 2007. A Corpus-based Study of the Suicide News by Korean Newspapers & Television Networks. *Speech and Communication*. 8: 252-275.
- Kim, Chun Sik. 2009. Novel influenza Reporting- Cautious Using of Anonymous News Source on Healthcare Issue. *Newspaper & Broadcasting*. (468): 54-61.
- Kim, Ii Hwan, Beom Mo Kang, and Heung Gyu Kim. 2012. The Analysis of Social Problems Based on Keywords and Their Associated Words from a Large Scale Newspaper Corpus. *The Journal of Humanities*. (21): 175-202.
- Kim, Jong Hwa and Hong Sik You. 2012. The Effects of Gain-or Loss-framed Internet Health News and Replies on the Perception of Reported Issues and Prevention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3): 176-217.
- Kim, Yong. 2016. An Essay on Korean Media's Coverage of Middle

-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1(1): 39-50.
- Kim, Yung Wook. 2006. Risk Society and Risk Communication: Reflexivity on Risk and the Need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ies*. 2(2): 192-232.
- Lee, Chang Kil. 2010. Value and Policy Priority at Initial Periods of Regim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3): 165-189.
- Lee, June Woong. 2000. Fram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effects. *Media and Society*. 29: 85-153.
- Lee, Koo Hyoung. 1997. Human Sensibility and I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Korean Society for Emotion & Sensibility*. 37-42.
- Lee, Mi Na and Ju Hyun Hong. 2016.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Government's Crisis Communication Messages during the MERS Outbreak.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5): 124-136.
- Lee, Min Kyu and Ye Ri Lee. 2012. A News Frame Study of Domestic Korean Newspapers' Coverage on Animal Infectious Diseas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2): 378-414.
- Loftus, Elizabeth F. 1979. *Eyewitness Testimon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cEnergy, Tony and Andrew Wilson. 1996.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Noh, Seong Jong and Wan Soo Lee. 2013. 'Global Warming' vs. 'Climate Change': A Framing Effect of Word Choice i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ies*. 9(1): 163-198.
- Park, Ki Soo, Gui Ohk Lee, and Myung Il Choi. 2014.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 Reports on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43-351.
- Popping, Roel.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L.G. 2013. Political Language: 'Gun Safety' Versus 'Gun Control'. *The Economist*.
- Sandman, Peter M. 1997. *Mass Media and Environmental Risk: Seven Principles*.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Shin, Seo In. 2015. A Corpus-Driven Discours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Concentrating on Seongjang(growth). *Textlinguistics*. 39: 111-156.
- Slovic, Paul, Baruch Fischhoff, and Sarah Lichtenstein. 1979. Rating the Risks.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3): 14-39.
- Song, Hae Ryong and Hang Min Cho. 201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ress' Disease-related Risk Reports-Focusing on the News Reports of Ebola Viru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45-68.
- Song, Kyung Hwa and Bum Mo Kang. 2006. Aspects of Language Use in Newspaper Articles: A Corpus Linguistic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7(4): 255-269.
- Whitmarsh, Lorraine. 2009. What's in a Nam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Public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8(16).
- WHO. 2005. *The World Health Report 2005-Make Every Mother and Child Count*.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병철. 2007.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에 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 252-275.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2(2): 192-232.
- 김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1): 39-50.
- 김일환, 강범모, 김홍규. 2012. 공기어를 이용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추이 분석. *인문학연구*. (21): 175-202.
- 김종화, 유홍식. 2012. 인터넷 건강보도에서 획득·손실 프레임과 댓글이 이슈 지각과 예방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6(3): 176-217.
- 김춘식. 2009. 신종플루 보도-의료보건 이슈에 일반인 익명취재원 활용 신중해야. *신문과 방송*. (468): 54-61.
- 노성중, 이완수. 2013. '지구온난화' 대(對)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9(1): 163-198.
- 박기수, 이귀옥, 최명일.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신종 감염병 보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343-351.
- 배진영. 2014. 구어·문어 사용역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23): 95-129.
- 송경화, 강범모. 2006. 신문 기사의 언어 사용 양상. *인지과학*.

- 17(4): 255-269.
- 송해룡, 조항민. 2015.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 45-68.
- 신서인. 2015. 코퍼스를 이용한 신문기사 담화 분석. 텍스트언어학. 39: 111-156.
- 이구형. 1997. 인간감성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37-42.
- 이미나, 홍주현. 2016.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위기 대응 메시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124-136.
- 이민규, 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언론과학연구. 12(2): 378-414.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회. 29: 85-153.
- 이창길. 2010. 정권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 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어 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3): 165-189.
- 정현원, 나건. 2007. 감성 평가를 위한 감성의 의미 재정립과 어휘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6(3): 17-25.
- 조홍준. 2001. 보건의료 보도-건강을 개인문제로 접근 말아야. 신문과 방송. (361): 20-21.
- 주영기, 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2): 363-381.
- 허용강, 차수연, 서필교, 김소영, 백혜진.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 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2: 75-113.
- 홍성호. 2015. 저널리즘 글쓰기 10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Received: Dec. 23, 2016 / Revised: Jan. 19, 2017 / Accepted: Jan. 23, 2017

감염병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 분석

–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주제로 어휘 분석을 위해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사용했고, 의학전문기자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기사 제목에는 부정적인 감성어휘가 많이 사용되었고 본문에 비해 자극적인 어휘 사용이 두드러졌다. 감염병 보도준칙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어휘들이 보도에 지속적으로 사용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언론보도에 사용 자제를 권고한 용어들도 여전히 기사에 남아있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언론사간 보도 경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기사를 하나의 콘텐츠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언론 구조를 위험커뮤니케이션 저해요인으로 지적했다.

주제어 : 위험커뮤니케이션, 감염병 보도, 어휘분석

Profiles **Ji Young Jeon** : She received her B.A. in linguistics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 2010. And she is supposed to get her M.A. in future strategy(science journalism) from KAIST, Korea in 2017. She is an announcer of Kyeong-Gi Broadcasting, in which she has worked since 2016. Before then, she belonged to Chu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risk communication and journalism(wisehero109@naver.com).